

대학생 독서부진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University Students Poor Readings

박 정 길(Jeong-Gill Park)**

< 목 차 >

- | | |
|-------------------|-----------------------------|
| I. 서론 | 3. 독서실태 조사 결과와 논의 |
| 1. 연구의 필요성 | III. 독서부진 해결 방안 |
| 2. 연구의 목적 | 1. 독서철학의 정립과 인식 제고 |
| 3. 독서학점부과제도 실시 방안 | 2. 독서학점부과제도 또는 독서인증자격제도의 실시 |
| II. 연구의 방법과 내용 | 3. 독서학점부과제도 실시 방안 |
| 1. 표집대상 및 조사도구 | IV. 결론 및 제언 |
| 2. 절차 및 자료처리 | |

초 록

현하 한국대학생들의 독서율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 독서부진의 제반 요인을 여러 부분에서 진단, 고찰하고 독서저해요인을 추출함으로써 독서생활을 조장하고 독서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독서철학 확립을 위한 논의를 정리하고, 또한 대학생 독서부진 해결을 위한 교육제도적 방안으로서 독서학점부과제도 또는 독서인증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제어: 독서부진 요인, 독서철학, 독서학점부과제도, 독서인증제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the solution of the problem that have made university students poor readings. What is the factors in make poor progress in reading of the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suggested the policies and strategies for correcting and improving the poor reading of university students. Especially in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ading philosophy of the university students. That is the presentation of reading certification and the credit system of reading in educational system and in reading guidance.

Key Words: The Factor of Poor Reading, The Philosophy of Reading, The Presentation of Reading Certification, The Credit System of Reading

* 이 연구는 2004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지원 연구비로 연구되었음.

**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kpark117@ks.ac.kr)

• 접수일: 2006년 11월 30일 • 최초심사일: 2006년 12월 11일 • 최종심사일: 2006년 12월 21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한국은 그 국력이 선진국 수준에 버금 갈 정도로 신장되었으나 비단 독서력은 경제력이나 교육력, 체력만큼 성장되거나 발달되지 않고 있다. 흔히 '체력은 국력이다', '교육력도 국력이다.'란 구호가 외쳐지곤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서 '독서력도 국력이다.'란 외침은 한국적 현실 상황에는 걸맞지 않는다. 교육적 입장에서 학력과 독서력은 정적상관관계를 형성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이것은 일부 개인적 측면에서는 인정할 수 있으나 사회적, 집단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동의하거나 한국적 실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만일 후자가 실제 상황에서 성립한다면 교육력이 강하거나 교육수준이 세계적인 한국적 입장에서 독서력 또한 세계적 수준이어야 할 텐데 우리의 독서력이나 독서율은 유감스럽게도 후발도상국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인은 독서를 잘 하지 않기로 정평이 나 있다. 국민의 독서율은 현재에도 후진국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바람직한 독서문화의 정착과 독서풍토 조성 및 독서철학의 부재현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참 독서생활이 왕성해야 할 대학생들의 독서부진 현상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정도로서 대학생이 독서를 게을리 하는 이유와 요인을 속속들이 밝히고 추출하여 독서부진을 해소하는 조치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요 지식과 정보가 기반이 되는 정보화 사회이다. 오늘날 식자들이 우려하는 현상들 가운데에는 '책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 라든가 '책 없는 도서관', '가상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등등 컴퓨터 및 인터넷 만능시대를 추종하고 구가하는 세대에서 독서가 실종되어 가고 있음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빈발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차츰 난해하고 복잡다단한 논리적, 현학적, 철학적인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정신적 노작인 독서를 멀리하려는 성향이 농후해 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조차 독서기피증에 침잠해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대학생들의 독서부진 현상을 이대로 방치해 두고 서는 대학생 자신의 자아성숙과 발달은 물론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은 어느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국가의 장래를 낙관할 수 없으며, 무자비한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 하기란 매우 지난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독서를 왕성히 함으로서 국민독서수준을 향상 시킬 뿐 아니라 독서를 숭선수범하면서 침체에 빠져있는 국민의 독서생활을 권장하고 이끌어 나가는 독서향상 첨병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독서는 인간을 인간답게 발전시키며 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과 운명을 발전적, 긍정적으로 인도하는 기묘한 위력을 발휘한다. 풍부한 독서를 통해 발휘되는 깊고 넓은 사고력, 상상력, 창의력, 아름답고 건실한 인간성의 국민들로 구성된 사회와 국가는 그야말로 문화수준과 문화적 가치가 풍성하고 건강한 국가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다.¹⁾

이와 같이 독서는 정신적, 물질적 풍요를 생산하는 원천이요, 개인이나 사회발전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불가결한 인간적 행위인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누구나 자기 계발은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생활화하거나 실천하는데 열의를 쏟아 부어야 한다.²⁾ 오늘날 대학생들의 실생활의 내용과 저들의 독서 실태를 유심히 관찰해 본다면 과연 우리 대학생들이 이렇게 독서를 게을리 해도 될 것인가? 일련의 독서실태 조사와 독서심리 진단 및 분석의 결과 한국대학생들의 독서관이나 독서철학의 부재에 개탄과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대학생들은 인생의 황금기로서 이 중차대한 시기에 교양을 풍부히 하고 지적, 정의적 학습에 분발역학 하며 자아성숙과 확충에 열성을 다해야 한다.

대학 4학년의 기간 중 1학년과 2학년을 교양과정이라 하여 이 시기에 교양서적을 풍부히 읽어야만 한다. 대학생의 꿈과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왕성한 독서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책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묘하고 위대하며 탄력성 있는 정신을 성장발달 시킨다. 일찍이 학문방법을 대 혁신한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은 '독서는 완전한 인간을 만들며, 담론은 기지 있는 사람을 만들고, 글을 쓰는 것은 정확한 인간을 만든다.'³⁾고 하였다. 대학생들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예상하고 마땅히 변화되어야만 하는 시기이다. '대학생과 독서'의 관계는 '고기와 물'의 관계요 대학생들의 필수적 실천과제 가운데 가장 으뜸의 중요성을 지닌다. 독서는 대학생에 있어 절대 절명의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지적 모험이다.

일찍이 미국의 실업가 카네기(Carnegie)는 대학에 대하여 주문하길 '대학은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온전한 인간을 배출해 달라. 단순한 기술자나 기능인은 기업의 기술연수교육 6개월만 났으면 가능하다.' 라고 일괄하면서 독서를 게을리 한 대학 졸업생의 비루한 인간성과 빈약한 교양지식을 지적하였다. 현금의 대학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분석, 평가해 본다면 반드시 이수하고 전수되어야 할 내용들은 제외되어 있거나 약화되고 있으며, 표피적, 지엽적 단편지식이나 외국원전 번역, 비실사구시적 학문 활동의 병폐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으며 인문학적 가치가 높은 일부 과목의 폐강 사태는 심히 안타까울 지경이다. 과제학습이나 탐구학습, 연구조사학습 등 학습독서의 기회가 축소되고 있으며, 자율학습을 통한 자기교육의 구현은 외연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전공과목 관계 서적의 필독서는 물론 교양과목 관련 서적의 독서활동도 매우 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다. 청년 실업사태와 대학 졸업생의 미취업사태의 심화는 대학의 학문적 풍토와 분위기를 훼손하고 있으며 이제 대학은 거대한 취업 준비 학원으로 변모해 가는 한심한 꼴을 연출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취업준비 학습, 고시 준비에 열중인 학생들로 가득 차 있고 학과의 인기도는 취업률의 과다에 연관되며, '대학진학생의 학과선택 기준은 취업가능성에 좌우되고 있다.

1) 박정길, 한국인의 독서부진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4). p.3.

2) 손정표, 신 독서지도 방법론(대구 : 태일사, 1999). p.116

3) 阪本一郎 等編, 現代讀書指導事典(東京: 第一法規, 1968), p.25.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의 황폐화 현상과 제반 문제는 무자비한 경쟁논리시상주의자들과 개발 우선주의자들의 소아병적인 정치 개입과 정책 혼선에서 유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사조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우울하고 살벌한 양태가 빚어지고 있다. 물질문명에 못 따라가는 정신문화의 저질성 현상이 심화되어 각종 비인간적인 사태가 돌출하고 있다. 일부 국민들의 비문화적 행동이나 비교양적 작태 뿐 아니라 몰상식하고 비인격적인 양태를 불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치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무엇보다 독서에 의한 인간개조교육과 인성교육, 교양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즉 초등학교시절부터 중·고등학교 시절에 걸쳐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독서지도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특히 대학과정에서는 독서를 학점화 하는 「독서학점부과제」나 「독서인증자격제」의 도입을 주창하는 바이다.

다음의 글은 「자신의 글 읽기 습관과 특성」이란 제목으로 제출한 어느 대학생의 리포트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우리가 대학에 들어오면서 책이라는 것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전공서적이거나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살펴보는 책들이 거의 전부이다. 또한 책을 읽고 답론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매번 똑같은 내용의 푸념이나 일상적인 신변잡기를 말하기에 바빴고, 마음의 양식을 쌓아야 할 시기에 술이나 피부어 마시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중략), 어떤 한 친구가 책을 읽고 있으면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한 개라도 더 외우든가 전공 공부나 하라고 어쭙잖게 나설 때가 많았다.' 근래에 와서 이와 같은 대학생들의 실상은 허다하게 목격되거나 공공연히 인정되며, 비학구적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는 추세이다.

위와 같은 대학의 실상과 분위기, 대학생들의 제반 문제, 대학생들이 당면한 현실적 상황과 사회적 제반 사정 때문에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독서는 실제적으로 많은 제한과 저해 요인으로 독서부진 상태를 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적, 사회적, 독서의 물리적·심리적환경의 불비와 제약 때문에 대학생들의 독서활동은 열악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본 연구자는 차제에 교양과목실시의 일환으로 「독서학점부과제도」나 「독서인증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하면서 연구자 본인이 구상한 '독서학점부과제도 실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개진한 내용과 대학생들의 독서부진을 타개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독서부진실태는 지난 7년간 연속적으로 7차례에 걸쳐 추적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히 들어나고 있다. 대학생들의 독서실상을 확인한 결과 그 내용이 너무도 빈약하고 우려할 정도로 수준이하인지라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사회지도자나 교육자로서 도저히 묵과하거나 방관한다는 것이 일종의 직무유기와 같은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처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태와 양상을 사회이슈화하고 교육적으로 연구하고 개선, 계도할 필요성이 절실한 때이다. 즉 대학생의 독서부진현상을 타개할 어떤 모종의 조치가 강구되고 어떤 방안이 수립되어야만 한다.

2. 연구의 목적

20세기 후반부에도 그렇지만 21세기에 접어든 지도 벌써 6년의 성상이 다 되어 간다. 지금도 한국의 교육적 현실에는 숏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적,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이들 있지만, 본인은 문헌정보학을 연구하고 교수하는 교육자로서 특히나 「독서지도론」을 다년간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피교육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개탄해 마지않는 내용은 우리 국민들의 독서율이 지나치게 낮으며, 그로인한 영향으로 국민의식수준, 문화수준, 교양수준, 개개인의 인성과 품성, 그리고 더 확대하여 국민성에도 타기해야 하거나 개조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독서가 체질화 되어 대학 4년 동안 엄청난 교양 및 전공서적을 섭렵, 독파해야 할 대학생들의 독서율, 독서수준, 독서생활이 심각할 정도로 저하되어 있다. 소위 대학생이면 잘 인식되고 실천해야 할 독서철학의 부재 내지 몰이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 독서지도교육의 이론 내지는 독서교육현장에서도 잘 논의되지 않고 있는 「독서철학」에 대해서는 다음 III장에서 다분히 주관적인 논설이 되겠지만 연구자 개인의 논의를 거론하려 한다.

일찍이 영국의 계관 시인 제인 메인스필드(Jane Mansfield)는 ‘대학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지칭한바 있다. 그것은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훌륭한 스승(교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좋은 친구와 사귀며, 위대한 정신과 사상 즉 위대한 서적을 만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학에는 훌륭한 교수가 있어 조리정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교양지식에 관한 강의를 열성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보다 폭 넓고 심오하고 풍부한 교양지식을 전달하는 스승이란 학생들이 자발적이든 타율에 의해서든 읽게 되는 위대한 서적(고서, 양서, 적서)이상 능가할 것이 별로 없다.

어떻게 보면 교수들도 거의가 누구보다 다종다양한 많은 서적을 독파한 독서 경험의 수혜자이며, 교수의 역할과 기능 중에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추천도서, 권장도서, 필독도서를 소개하거나 설명해주는 명저의 안내자요, 책과 학생들을 연결시켜주는 가교적 역할의 수행자이기도 하다. 불란서의 작가 아놀드 프랑스(Arnold France)는 ‘내가 인생을 안 것은 사람과 접촉한 결과가 아니라 책과 접촉한 결과이다.’라고 하면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대학생활에 있어 왕성한 독서행위는 필수사항으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그들의 본분이자 절대절명의 실천과제이다. 시간과 정력과 독서여건이 잘 보장된 대학시절에 체계적이고 풍부한 독서를 해두면 다음 단계의 인생과 사회생활을 착실히 준비하는 것이 되며, 어떤 개인적 사회적 난제나 역경이 닥쳐와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체득하게 된다.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고서 거의 예외 없이 대학생활의 보람과 졸업 후의 승부는 얼마나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독서를 했느냐에 좌우된다. 대학생활의 참된 의미와 가치, 성공적인 삶은 폭넓은 교양 함양과 인류공통의 지식과 지혜를 최대한 섭취하는데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줄 안다. 1998년 세계올림픽 제전을 전후하여 사람

들에 회자되었던 '체력은 국력이다.'란 구호가 있었듯이 교육력과 독서력도 국력형성의 한 요소임은 확실하다. 한 나라의 부강과 발전적 운명이 교육의 양과 질에 좌우됨은 역사적 실체가 증명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교육의 병폐와 불합리성을 일일이 지적할 필요는 없겠지만 교육 방법과 내용 및 환경수준은 분명히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의 상황과 실정, 학생 및 국민의 의식수준, 문화수준은 개탄과 분노, 안타까움의 언저리에서 맴 돌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과 교육의 제반 내용, 방법이 구태의연하게 방치, 심화된다면 국가와 민족의 장래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인은 위기에 처한 현대 한국교육의 제반 문제를 타개하는 한 방편으로 학교 독서교육의 제도화를 통한 의도적 독서교육 실시를 주장하면서, 특히 대학에서는 독서실적을 학점화하여 날로 하향추세를 견고 있는 대학생의 독서활동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⁴⁾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독서실태 및 독서심리 조사 분석의 결과와 또 다른 대학생 독서실태 연구자들의 보고 내용을 비교, 조사, 평가한 결론은 한마디로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떤 수를 써서라도 대학생들의 독서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라는 것이다. 지난날 국내의 일부 몇몇 대학에서 「독서학점부과제도」를 실시하여 의도적, 교육적으로 독서실적을 향상시킨 사례가 있었는데 그 바람직한 교육방법이 왜 지속적으로 실행되지 않았는지 의아스럽기조차 하다. 일련의 독서심리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지적, 정의적 학습은 거의 70%~80%가 자율적이거나 타율적 독서행위와 독서과정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대학의 교육방법에 있어서 강의중심의 학습이 초래하는 효과와 능률의 문제를 재고하거나 재검토 하게 된다. 한국적 대학교육이 당면한 현실적 난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교육환경의 불비와 대단위 강의일변도 학습과 최근의 취업목적에 혈안이 된 교육방향을 지양하는 대학 자체 내의 각성과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골자는 대학생들의 독서부진 해소를 위한 어떤 대안의 강구와 조치,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그리하여 대학생들의 독서실태와 독서부진요인을 다년간에 걸쳐 조사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마디로 표현하여 대학생 역시 늘 일상생활이 바빠서 시간이 없고, 독서의 습관화, 체질화, 생활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음이 가장 주된 원인이다. 그들은 입시지옥이라는 대학관문을 헤치고 입학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치열한 학력 경쟁을 벌였다.

고등학교 3년간 아니 어쩌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온통 좋은 대학 합격을 위해서 꿈 많은 그 좋은 시절을 입시위주의 책들과 씨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선 무미건조하고 암울한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책과의 긴 여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책=독서라면 진절머리가 난다고 실토하는 학생이 있다.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 입학 후 책 없는 세상에서, 당분간 책과 이별한 채 실컷 청춘을 구가하며 신나게 광란의 축제를 펼치고 싶단 심정을 고백하는 학생도 있다. 그들에게 있어 지난 3년간의 '책과의

4) 박정길, "대학생의 독서실태 및 독서심리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논총 특별호, 제3집 (2004. 2), pp.378-379.

동침'은 바로 '적과의 동침'과 같다고 비유한 학생도 있다. 이렇게 대학생들이 책과 독서에 대한 느낌과 심경의 일단을 피력한 글을 읽을 때 이것은 일종의 경악이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한국 교육의 병폐와 부조리를 확인한 것 같아 입맛이 씹쓰레하다. 한국교육의 실상과 현주소에 대한 일대 반성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생들 역시 현대의 영상문화의 위력 앞에 굴복하거나 함몰되며 심각한 영상중독현상에 걸려 인쇄매체에서 동떨어져 나감을 실감할 수 있다. TV 시청,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PC통신에 많은 시간을 빼앗김으로써 독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들 자신도 개탄스러움을 실토히는 것이, 무엇인지 뚜렷이 하는 일도 없는데 늘 바쁘게 움직이며 정신없이 돌아가는 기분이라면서 독서를 열심히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차분한 기분으로 집중력을 갖고 독서할 시간적, 심적 여유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독서지도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지 어떤 책을 읽어야 좋을지도 잘 모르겠고, 책을 빨리 읽지 못하면 책 읽기가 지루하고 싫증이 난다고 한다. 많은 학생들이 속독법을 배워야겠다고 한다. 독서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지 책을 읽어도 이해와 감상이 제대로 잘 안된다고도 한다. 그들 역시 독서풍토의 열악, 독서환경의 불비 가운데 놓여 있다. 경제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보고 싶은 책을 제때에 사 볼 수 없어 독서기회를 상실하거나 독서의욕 실추와 현실적 좌절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공공도서관이 동네마다 있거나 대학도서관에 장서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리고 대학 내의 독서 분위기도 문제 삼았다. 책 읽는 학생이 오히려 백안시당하고 이상하고 기특하게 비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교수들도 수업시간을 통하여 필독도서 목록을 제시하여 주거나 권장, 추천 도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고 외국대학처럼 독서과제를 부과하거나 교과과정에 관련된 타 도서를 소개, 안내하는 기회가 매우 적은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독서부진 원인은 대학생들의 독서철학이 빈곤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확고한 독서의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독서가 당장 어떤 유익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치졸한 단견과 우둔함을 쓴 학생도 있을 뿐 아니라, 독서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싫증이 난다고 쓴 학생도 있다. 독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를 게을리 하면서 독서는 재미도 없고 피곤하고 지루한 정신적 작용이라면서 기피하려 한다. 대학생에게 있어 독서는 알파요 오메가인데 이 같은 중요성과 당위성을 간과하면서 독서보다 더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많다고 독서를 외면하고 있다. 그들은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동경과 질 높고 아름다운 고급문화를 향수하고자 하는 열망도 식어 있다. 현대의 물질지상주의와 황금만능주의, 향락·퇴폐 문화에 경도되어 대학생의 신분과 역할과 책무를 방기한 채 허황되고 목적의식도 불투명한 대학생활을 허송세월하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비싼 등록금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⁵⁾

5) 박정길, 전거서, pp.107-108

II. 연구의 방법과 내용

1. 표집대상 및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한 독서실태 조사 대상은 경성대학교(이하 K대학으로 호칭함) 재학생과 부산대학교(이하B대학으로 호칭) 재학생 일부이다. K대학생은 본 연구자의 담당 과목인 「독서지도론」수강생이고, B대학생은 「정보와 사회」과목의 수강생 56명을 대상으로 2000년도 한해만 독서실태를 조사 하였다. 타 대학 학생을 상대로 몇 년간 연속조사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았다. K대학 학생을 상대로 조사한 년도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연속 7년간 7회에 걸쳐 조사하였는데 피조사 대상자 수는 다음과 같다.

1998년: 85명, 1999년: 74명, 2000년: 52명, 2001년: 85명, 2002년: 73명, 2003년: 74명, 2004년: 68명으로서 피조사자 총수는 511명이다. K대학생 511명과 B대학생 56명을 합하여 도합 567명의 독서실태를 조사하였다(표 1 참조).

그리고 제 3자의 대학생 독서실태 조사 내용을 참고로 하였는데, 역시 경성대학교 문헌 정보학과 「독서지도론」교과목 수강생 50명을 대상으로 강사인 손혜경의 조사내용을 참고하였다(표 2 참조).⁶⁾

독서조사의 범위 및 내용의 결정과 항목 및 방법의 설정이란 그 조사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K대학, 및 B대학 학생들의 독서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 대학생들의 독서실상을 명확히 진단하고 구명하여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독서실태 조사표는 「한국 독서생활화 연구회」가 작성한 대학생용 설문지를 기본으로 하여 연구자 본인이 변형, 개조, 첨가,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독서실태 조사 문항은 총27개 항목이었으나, 24개 질문항목의 반응은 본 연구와 별 상관이 없어 제외 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인 1) 1일 독서시간, 2) 월간 독서권수(독서량), 3) 독서 장애요인 반응을 도표화하여 이것을 분석, 평가,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K대학생 및 B대학생들의 독서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봄으로써 세인들의 여론과 사회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대학생들의 독서부진 실태를 실질 조사하여 증명, 확인하고 그로부터 도출된 독서문제를 적절한 처방을 강구하여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즉 「독서학점부과 제도」 및 「독서인증자격제도」의 도입과 실시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자료와 설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피조사자 표본(sample) 추출을 K대학생과 B대학생의 일부에 국한하여 표본조사한 방법은 한국대학생 전수조사를 위한 표본추출을 적절히 구사하지 않았음은 이 연구의 제한점이요 취약점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6) 손혜경, 경성대학교 인문사회계열 수강생 독서실태 조사 보고서, 2000년 10월 교내 발표서, p.5.

2. 절차 및 자료처리

대학생 독서부진 해결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의 독서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 분석,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자 본인이 제작한 「대학생 독서실태 조사」 설문지를 갖고 K대학에게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연속 7년간 매년 실시하였다. 또한 K대학 「독서지도론」 교과목 담당 강사인 손혜경은 2000년 10월24일부터 10월27일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B대학생들을 대상으로는 2000년 5월 「정보와 사회」 교과목 수강생을 상대로 한해만 조사하였다.

이상과 같이 피조사자의 수는 조사 년도마다 매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여 결국 지난 7년간 독서실태 피조사자의 총 인원은 손혜경이 조사한 대상자를 제외하고 도합 567명이다.

회수된 독서실태 조사 자료의 통계처리와 통계자료 작성은 연구자 본인을 비롯하여 학과 조교가 수고, 협조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관련된 항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연도별로 피조사 대학생들의 1일 독서시간량<표 1>, 월간 독서권수<표 2>, 독서장애요인의 반응표<표 3>을 작성하였다. 이들 3가지 조사문항의 내용이 양적 및 질적 유목(Qualitative Category)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처리 방법은 명명척도에서 얻어진 계수적 자료를 처리해서 어떤 현상이나 집단의 상태를 일률적으로 분석, 기술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⁷⁾ 대학생 독서실태 조사의 반응표는 반응의 실제 수를 계산하여 기록하고 그 실수를 백분율(%)로 환산 처리하여 여러 해당 문제와 요인들을 진단, 분석, 평가, 해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절차와 통계처리 과정을 거쳐 작성된 각 반응표의 내용을 분석, 평가, 해석한 결과 K대학 재학생과 B대학 재학생들의 1일 독서시간, 월간 독서권수(연간 독서량도 자동적으로 파악됨), 독서장애요인의 반응표가 작성되었다.

3. 독서실태 조사 결과와 논의

대학생 독서실태 조사 자료의 통계적 처리에 의하여 작성된 각 표에 준하여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문항인 대학생들의 독서실태 중 1) 1일 독서 시간량, 2) 월간독서권수, 3) 독서저해요인에 대한 반응내용을 도표화 하여 이를 분석,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7) 車培根, 社會統計方法(서울: 世英社, 1980). p.69.

1) 1일 독서 시간량 조사(하루 동안 독서하는 시간은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표 1〉 1일 독서 시간량 조사 (명/%)

독서시간량	조사년도								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4년	
피조사자수(명)	85	74	K대학생52 B대학생56	85	73	74	68	567명	
0~30분미만	6	3	3 1	4	3	3	6	29(5.1%)	
30분~1시간미만	49	52	36 38	61	51	55	46	388(68.4%)	
1시간이상~2시간미만	19	13	10 9	15	13	12	10	101(17.8%)	
2시간 이상~3시간미만	5	4	2 3	3	3	2	4	26(4.6%)	
3시간 이상~4시간미만	4	2	1 4	2	1	1	2	17(2.9%)	
4시간이상	2	0	0 1	0	2	1	0	6(1.1%)	

〈표 1〉에 나타난 대학생들(K대학 및 B대학)의 1일 독서시간량은 피조사 567명 중

- ① 거의 독서를 하지 않거나 겨우 30분 미만에 불과한 학생은 전체의 5.1%인 29명
- ② 30분 이상 1시간미만은 전체의 68.4%인 388명
- ③ 1시간 이상 2시간미만은 전체의 17.8%인 101명
- ④ 2시간 이상 3시간미만은 전체의 4.6%인 26명
- ⑤ 3시간 이상 4시간미만은 전체의 2.9%인 17명
- ⑥ 4시간 이상 독서를 제대로 하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1.1%인 6명이다.

이상의 결과를 평가, 해석해 보면 대학생 신분으로서 독서생활을 제법 관찮게 실천하고 있는 학생들은 ④⑤⑥을 합산하여 전체 응답학생의 8.6%인 49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대학생들의 하루 평균 독서시간이 1시간 정도 밖에 미치지 않음은 일본 대학생의 하루 평균 독서시간 3.8시간⁸⁾에 비교하면 1/4 수준에 불과하다.

참고로 손혜경의 K대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실태를 조사한 내용 가운데 ‘한국 대학생의 독서량 조사’에서 ① 타국 학생에 비해 적게 읽는 편이다. 에 80%의 학생들이 공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②

8) 전희준, ‘大學生과 讀書’란 강연 유인물 p.2(2003. 9. 19),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청 강연에서 일본 대학생의 1일 독서시간 평균 3.8시간(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독서 세론조사에서 인용함)

나도 우리나라 대학생이지만 너무 책을 읽지 않는다. 에 58%의 학생들이 자기고백을 하고 있다. 독서를 가장 열심히, 왕성히 실행하여야 할 대학생활에서 이렇게 저조한 독서부진 현상은 심히 충격적일 뿐 아니라 가정적, 사회적,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사태로서 어떤 대안과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월간 독서권수(학생은 한 달 동안 대개 몇 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까?)

〈표 2〉 월간 독서권수 (명/%)

권 수	조사년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피조사자수(명)	85	74	K대학생52 B대학생56	85	73	74	68
거의 읽지 않음		19	10	9 6	17	12	10	11	94(16.6%)
1권 이하		32	26	20 21	33	29	28	30	219(38.6%)
2권 이하		12	14	8 9	11	12	13	12	91(16%)
3권 이하		12	13	9 11	10	11	14	9	89(15.7%)
4권 이하		8	6	4 7	6	6	5	4	46(8.1%)
5권 이하		1	2	1 1	3	1	3	2	14(2.5%)
5권 이상		8	3	1 1	5	2	1	0	14(2.5%)

〈표 2〉에 반영된 대학생들의 월간 독서량은 예상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반응이 나왔고 개인차가 상당히 심한 현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상 대학생들의 월간 독서권수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사항이다.

피 조사자 567명 중 71%인 404명의 월간 독서권수(독서량)은 거의 1권 정도로서 연간 12권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선진 외국 대학생들의 연간 50권에 비하면 1/4수준밖에 안 된다. 〈표 1〉의 1일 독서시간 조사에서도 1일 평균 독서시간이 1시간 정도로서 이것은 일본 대학생의 1일 평균 독서시간 3.8시간과 비교하여 1/4수준에 지나지 않음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결국 독서시간과 독서량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음은 상식적 판단과 일치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은 소위 대학생이 한 달 1권 정도의 책을 읽고 있으며, 그 위에 한권도 거의 읽지 않고 있는 대학생이 16.6%(94명)나 된다. 〈표 2〉의 반응 수치를 연도별로 비교 분석해 볼 때 1998년인 6년 전의 경향이나 2004년 최근년의 독서량 내용이 비율상 큰 변동을 나타

나지 않고 있다. 타 연구조사 논문이나 연도별 독서량 조사 보고서(한국출판연구소와 문화관광부의「국민 독서실태 조사」내용)에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여러 독서실태 조사 내용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최근년으로 오면서 독서를 이나 독서 실적이 저하되고 있는데 본 연구자와 손혜경의 독서실태 조사에서는 독서시간, 독서량의 변화 추이가 그렇게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어쨌든 본 연구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 대학생들의 월간 독서량이 1권 정도에 불과하며 연간 12권 전후에 그치고 있음은 큰 문제요 이러한 독서부진 현상을 타개하는 가정적, 사회적, 교육적 장치와 효과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3) 독서 장애요인 조사(무엇이 독서를 저해하는 지요?)

〈표 3〉 독서 장애요인 조사 (명/%)

조사년도 피조사자수(명)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독서장애요인	85	74	K대학생52 B대학생56	85	73	74	
독서할 시간이 거의 없다	23	20	15 16	23	20	20	18	155(27.3%)
독서가 습관화 되어있지 않다	20	18	12 13	20	18	18	16	135(23.8%)
독서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7	5	6 6	4	4	5	6	43(7.6%)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몰라서	2	2	1 2	1	0	0	1	9(1.6%)
TV시청, Computer game, Internet 등에 시간을 빼앗겨서	10	14	8 10	17	15	16	20	110(19.4%)
읽고 싶은 책의 구입이나 책 빌리기가 어려워서	8	6	4 3	9	6	7	2	45(7.9%)
도서관 시설의 열악과 장서가 빈약해서	7	4	3 4	8	4	6	1	37(6.5%)
독서 분위기(독서의 물리적, 심리적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8	4	3 1	3	5	2	4	30(5.3%)
기 타	0	1	0 1	0	1	0	0	3(0.6%)

〈표 3〉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대학생들의 독서저해요인 중 가장 높은 원인은 '독서할 시간이 거의 없다'가 피조사자 567명 가운데 155명으로서 27.3%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가 '독서가 습관화 되어 있지 않다'(135명, 23.8%). 세 번째 요인으로는 우리가 다들 예상한 바 'TV시청, computer game, internet' 등 영상매체의 영향이 110명, 19.4%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의 영향요인은 〈표 3〉에 기록된 내용을 참조하면 되고, 「기타란」에 표시된 독서장애요인을 열거

하면 다음과 같다.

- 1) 수강과목의 상대평가로 인한 학점 부담, 어학학습, 취직시험 준비, 동아리 활동, 친구(이성 친구)와의 교제 등으로 독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 2) 독서흥미가 없다. 독서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
- 3) 독서지도 받은 경험이 없다. 속독이 안 되어 독서가 지루하고 피곤하다.
- 4) 읽은 내용의 이해, 감상이 힘들다.
- 5) 경제사정으로 읽고 싶은 책을 사보기가 어렵다.
- 6) 도서관장서의 빈약.
- 7) 책을 보면 머리가 아프다.

등등 가지각색의 독서 장애 요인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 이유 때문에 독서지도 방법상 「개인독서상담」도 실행되어야 한다. 독서상담 및 독서지도(reading guidance)를 통한 현실적 독서지도 활동도 요구된다.

Ⅲ. 독서부진 해결 방안

1. 독서철학의 정립과 인식 제고

대학생 독서부진의 원인이 다종다양하게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독서철학의 부재 내지는 빈곤 현상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독서관계 문헌에서는 독서철학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구자 개인의 경험과 사상을 정리하여 독서철학에 대한 개념과 논의를 정립해 본 것이다.

종교의 일반적인 본질, 개념, 인식 및 가치의 중요성을 철학의 입장과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종교철학이라고 하며, 정치의 본질과 개념, 인식 및 가치를 연구하는 학문을 정치철학이라 표현하듯이 본란에서 독서의 본질과 개념, 인식 및 가치를 독서철학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독서철학은 어떤 개념이며 그 학문적 정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독서철학의 개념과 가치는 한국인의 의식과 인식세계에 어떤 내용과 유형으로 내재되어 있을까?

한국사회에 있어서 독서철학의 부재 내지, 빈곤현상은 일반적으로 독서의 본질과 중요성 및 확고한 가치관이나 독서문화가 보편적 가치로 인식,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독서풍토가 역사적, 사회 문화적, 교육적, 가정적 측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독서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미성숙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거나 연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독서철학도 정립될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독서철학이 보편적 가치로 인식, 확산되거나 독서문화가 심화, 정착되지 못함으로써 한국인의 독서부진현상의 해소와 독서를 저하는 당연한 필연의 귀결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게이츠(Gates, J. K)는 철학을 보편적인 학술적 차원에서 '철학이란 인생의 현실과 가치에 관한 조직화 되고 보다 못지않은 철저한 개인적 태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게이츠의 철학적 해석을 원용하여 독서철학을 부연 설명한다면 독서철학은 독서와 연관된 인생과 독서의 현실과 독서의 가치관에 대한 조직화되고 체계화 된 인식의 구조이며, 보다 철저한 독서에의 개인적 견해와 태도라고 풀이할 수 있다.

철학의 광범위하고 연속적인 고찰과 문제 제기의 목적은 인간과 세계를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과 세계 이해의 가장 좋은 수단과 방법은 바로 독서행위이다. 독서를 통해서 인간은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 동서고금을 관통 할 수 있고 세계의 온갖 사건과 역사적 사실과 사회 문제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책을 펼치면 그 속에는 수많은 길이 있고, 그 길은 독서를 행함으로써 발견되어지고 정복되어 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서철학'이란 용어는 독서를 대상으로 연구하거나 독서의 진정한 뜻을 알고자 하는 관심과 호기심을 내포한 단어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독서를 일컬어 '책을 읽는 것', '서적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단순설명 한다면 독서철학은 읽거나 이해하는 내용 및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즉 독서를 대상으로 관심과 흥미로써 탐구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학문이라 정의할 수 있다. 우리의 학문세계나 교육세계 내지는 지성사회 안에서 '독서철학'이란 용어는 생소하거나 드물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독서교육이나 독서지도 영역에서조차 좀처럼 언급되지 않고 있다.

철학이 삶의 지평을 넓혀주고 삶의 궤적을 변화시키며 우리 인생의 내 외연을 확장시켜 주듯 독서철학의 정립은 독서를 행함으로써 그의 자아를 성숙시킬 뿐 아니라 확장까지 시켜 주며 보다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독서철학은 올바른 독서관의 확립에서 형성된다.

항상 꾸준히 책을 읽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내적 성장과 확충, 자아의 성숙과 발달은 물론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진보, 발전에 연결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는 신념자체가 바로 독서철학인 것이다.

독서철학이 그의 사상과 인식세계에 굳건히 자리한 자는 스스로 책을 사랑하는 자요 책의 소중한 가치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귀히디귀한 지적, 정의적 보물로 책을 다루는 마음의 소유자이다.

독서를 통한 감동 경험, 정서적 충만, 지적희열, 자아의 변화와 성숙, 내면세계의 확충을 맛보고 인식한 자라야 독서철학을 체득 할 수 있다. 바람직한 독서철학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 가는 단초를 제공하고 오늘보다 향상된 내일을 펼쳐주며, 서서히 성장하고 상승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채롭게 펼쳐지는 인생여정에서 삶의 지혜를 더해 주

며 사고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시켜 주는 길라잡이가 된다.

독서에 대한 종합적 가치관(독서의 가치가 다종다양하지만)이 일종의 생활관, 또는 인생의 좌우 명과도 같이 의식화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독서철학을 소유했다고 할 수 없다. 독서란 인간이면 누구도 거역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인간행위의 기본이요 인간이 인간다운 기능을 하려면 늘 이 기본적 필수 행위를 실천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절대적 당위성을 인정하고 옹호하는 자세야말로 독서철학의 자세이다.

혹자가 독서철학이란 용어가 합당한 것이냐? 과연 학문적 용어로 성립될 수 있느냐? 라고 반문한다면 다음과 같이 응답하고자 한다. 예컨대 사고의 규칙이나 인식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이 논리학이나 인식론이고, 존재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영역이 형이상학이나 존재론이며, 역사나 인간이나 사회에 대한 근본적 방식을 탐구하는 학문이 역사철학, 철학적 인간학, 사회철학이다. 이렇듯 연구대상에 의하여 종교철학, 법철학, 교육철학, 정치철학이 성립하듯 독서에 대하여 그 보편적 가치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독서철학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우리 대학생들의 독서문제를 고찰해 볼 때 독서철학의 정립과 발달 및 그 보편적 가치가 확산되고 실현됨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한국사회를 짊어질 미래 동양의 핵심 주체로서 대학생의 독서증진과 독서부진현상을 해소할 사회적, 교육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독서철학의 보편적 가치와 독서철학의 정립 및 이의 인식과 이해가 확산되고 실행되어야만 우리나라 대학생은 물론 국민 모두의 독서생활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여기에 참고로 하이부로(ハイブロ) 무사시(武藏)의 저서 「삶을 향상시키는 독서철학」의 머리말 일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에게 있어 삶의 보람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릴 때부터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해 왔다. 사람은 왜 사는가. 살아가는 기쁨은 무엇에 있는가. 사람이 사람답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내가 책을 읽는 것은 삶의 보람을 찾기 위한 길이었는지도 모른다.”⁹⁾

하이부로 무사시는 독서를 권장하고 있는 그의 홈페이지에서 “책을 읽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나라와 세계와 인류를 함께 잘살 수 있게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책을 읽자는 주장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은 삶의 보람을 찾고 얼굴이 변합니다. 물론 멋지고 잘난 모습으로 말합니다.”¹⁰⁾라고 그의 독서철학, 즉 독서에찬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생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독서의 생활화, 습관화가 그들의 현재와 장차의 생활에 있어 중대한 사항임을 성찰하고 인식한 정도가 자기애적, 무의식적 성향으로 작용하여 독서철학의 보편적 가치관이 실천적 행동으로 발현됨으로써 자신의 성장, 자아의 성숙과 발달은 물론 사회와 국가

9) 하이부로 무사시, 삶을 향상시키는 독서철학, 차미호 옮김(서울: 정우사, 2001), p.5.

10) <http://highbrow634.net>

및 인류의 발전에 기여함을 자각, 확신하는 내적 믿음과 사상이 성립되고 확산, 실행된다면 우리 대학생들의 독서부진현상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해소될 것으로 본다.

2. 독서학점부과제도 또는 독서인증자격제도의 실시

대학생들의 독서부진 해결 방안이 여러 가지 있겠으나 본 연구자는 뭐니뭐니 해도 대학생 신분이라면 독서철학이 그의 내부에 정립되어 있거나 독서철학의 넓은 이해와 깊은 인식이 자리매김해야 될 줄 안다. 그 다음 단계로 독서율, 독서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계획적인 독서행위 실천의 유인 체제를 도입하여 의도적, 교육적으로 독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의 일환으로서 새삼스러운 방책은 아니지만 「독서학점부과제도」 또는 「독서학점인증제도」의 실시가 요망됨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대학생과 독서의 관계는 고기와 물의 관계와 다를 바 없다. 이렇듯 “대학생과 독서”의 관계는 너무도 중요한 명제로서 그 상호 밀접성과 당위성을 장황하게 역설하거나 강조할 필요가 없으리만큼 대학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풍부한 독서를 해야 한다. 바로 ‘책벌레’나 ‘독서광’이 되어야 한다. 대학생들은 인생의 황금기로서 이 시기에 자신의 지적, 정서적, 인격적 바탕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본인 삶의 문제해결은 물론 국가사회가 기대하는 전인적 소양과 능력을 발휘하기가 심히 지난함은 그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다.

현재(과거에도 거의 그랬지만)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분석, 평가해 보면 취업준비 학습에 경도 되어 있거나 꼭 교수할 내용은 약화되고, 잡다한 지엽말단적 단편지식만 주입하는 악순환의 행진만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의 세대와 대학생 및 국민의식수준(문화인으로서의 자질부족 등)이 저급하기 이를 데 없다고 하는 식자층의 우려가 팽배되어 있다. 결국 이 상태로 교육이 흘러간다면 민족, 국가사회의 장래는 비관적이며, 교육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어 갈 것이다. 본인은 이렇게 위기에 처한 현대 한국교육의 위기를 타개하는 방안으로서 독서교육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제안이 물론 과거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효율적인 자기교육의 방법 가운데 독서를 통한 자율학습 만큼 실적을 획득하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즉 훌륭한 적서와 양서, 고전을 통한 교양교육의 실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대체 인간의 능력은 지식으로부터 발현되고 그 지식은 독서를 통하지 않고서는 획득하기가 지난함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대학생이면 당연히 전공독서는 물론 교양독서가 생활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학생의 독서율은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 그것은 앞장에 제시한 <표 1>, <표 2>의 내용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독서실적이 저조한 상태를 그냥 방치해 뒀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학생 스스로 고전이나

양서를 읽지 않으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읽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교수집단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과된 사명과 계도적인 책임을 저버리고 독서부진 실태를 방관하거나 현상을 개탄만 하고 있다면 이것도 교육자적 양심과 의무를 위배한 일종의 직무유기라 할 것이다.

〈독서학점부과제도〉실시는 위대한 서적을 통한 바람직한 교양인의 함양이요 전인적 인격과 지적탁월성의 고양이 그 근본 취지이다.

이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첫째, 동서고금의 위대한 정신의 향수와 위대한 대화에 참여.

둘째, 폭넓은 교양인으로서의 전인적 소양과 가치관의 확립.

셋째, 인간과 사회 및 세계의 기본적 문제의 이해.

넷째, 삶의 과정에서 당면하는 문제 해결 능력의 배양.

다섯째, 민주시민 사회인으로서의 적합한 자질 획득.

여섯째, 종합적, 창조적 사고력의 발달 및 상상력, 추리력, 통찰력, 구상력 등의 신장.

일곱째,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독서의 생활화를 통한 자기개발의 습관 형성 등이다.

한국의 모든 대학들이 의도적, 계획적으로 교육정책적 입장에서 제도적 장치를 동원하여 독서부진 상태에 놓여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 4년 동안 최소 100권 이상의 양서를 읽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적용함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왕성한 독서실적 없이 대학을 졸업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명약관화하다. 대학생들로부터 다소의 불만과 불평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독서를 하겠끔 긴요하고도 적절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 장치가 바로 「독서학점부과제도」 또는 「독서인증자격제도」이다.

3. 독서학점부과제도 실시 방안

현재 한국 대학생들의 매우 저조한 독서율과 독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교육적 장치 및 독서교육적, 독서지도 방법론적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연구자가 구상하여 제안하는 독서학점부과제 실시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학점부과제 실시 방안을 계획하고 실시하기 위해 교양학부 내에 이를 위한 제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대학생이 재학 중 읽어야 할 「필독 교양도서 목록」을 작성한다.

셋째, 독서학점 취득 방법과 학점 단위를 결정한다.

넷째, 필독 교양도서 자료는 대학별 또는 학과별로 독서목록 및 독서권수를 별도로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대학이나 학과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전 대학생에게 공통적으로 동일 적

용할 것인지를 고려한다.

다섯째, 필독하여야할 교양독서물은 매 학년, 매 학기당 몇 권을 읽힐 것인지? 그리고 읽은 내용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누가 평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교양 독서」(가칭)과목은 정규과목과 같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독서학점부과제담당 지도교수가 교양독서과목의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독서감상문이나 독서리포트로 대체하여 평가할 것인지를 심의 하여야한다.

여섯째,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 논의 되고 결정된 이후 독서학점 취득에 관련된 교양독서 이수방법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재학생은 대학1학년과 2학년 동안 매 학년, 매 학기에 걸쳐 「교양 독서」과목의 강의는 없지만 「교양필수과목」으로 수강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2) 매학기 1학점 단위로 1,2학년에 걸쳐 4학기에 4학점을 취득 하도록 한다.
- 3) 중앙도서관이나 단과대 도서관에서는 대학별 지정 교양 독서자료를 구입, 비치하여 대출한다. 대출기간은 되도록 1개월 정도 장기 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생 개인이 해당도서를 구입하여 읽도록 권장한다.
- 4) 교양독서과목의 평가는 독서자료별로 문제를 출제하여 시험기간 또는 적절한 시기에 응시토록 하거나, 독후감상문이나 독서리포트를 제출케 하여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 5) 독후감상문이나 독서리포트일 경우 지도교수가 평가하되 독서내용의 이해 및 독서성취도를 측정하여 점수화 한다. 평가척도는 A, B, C, D, E, F등급별로 평가하거나 '합격, 불합격'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6) 독서학점부과제 실시에 관련된 「필독교양도서목록」과 「이수 평가 담당지도교수」명단을 작성하여 매학기 시작 무렵 학생들에게 배부한다.
- 7) 독서학점 담당지도교수는 평가결과를 「독서학점처리 성적 일람표」에 기록하여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가 끝나면 교학처(교무과)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8) 대학당국은 독서학점 평가를 담당한 지도교수에게 매 학기당 평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도교수 한 명이 상당수의 독후감상문이나 독서리포트를 읽고 평가하거나 혹은 구술테스트까지 병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정력이 소모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독서학점부과제 실시 방안에 대하여 시안을 제시하여 보았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 견해를 정리해 본 것이므로 구체적 실시방안은 이 제도를 채택하는 대학자체의 여러 형편과 조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실시계획 방안을 수립하면 좋을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1998년부터 2004년대까지 7년간 매년 실시한 우리나라 대학생의 독서실태 조사결과는 예상한 바 그 심각성이 대단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독서를 왕성히 해야 할 대학생들의 독서수준이 저조하기 이를 데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독서실태조사 대상을 전국적으로 범위를 넓혀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표본 추출을 부산지역 소재의 K대학생과 B대학생만을 상대로 조사했기 때문에 그 신뢰도나 타당성에 다소 문제제기나 의의가 있을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일반적 독서부진 현상은 언론매체를 통해서나 이 분야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이나 학회보고자료, 한국출판연구소의 「독서실태 조사」내용, 문화 관광부의 「국민독서실태조사」발표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1일 독서시간 조사자료(표 1)에 의하면 피조사자 567명 중 68.4%인 388명이 하루 1시간미만의 독서를 하고, 17.8%인 101명이 2시간 미만의 독서를 하고 있다. 피조사자의 전체 평균 1일 독서시간은 59분 정도로 이것은 일본 대학생들의 1일 독서시간 3.8시간에 비하면 1/4수준에 불과하다. 우리 대학생들이 이렇게 독서를 등한시함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로서 그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여 그 저해요소를 불식하고 독서열 향상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월간 독서권수(독서량) 조사자료(표 2)에 의하면, 피조사자의 71%인 404명은 한 달 동안 거의 1권정도의 책을 읽고 있는데 이것을 연간 독서량으로 단순 계산하면 일 년 동안 12권 정도의 책을 읽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선진외국 대학생들의 연간 독서량 50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자가 조사한 내용과 손혜경의 독서실태 조사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 하며, 다른 조사 발표에서도 한국대학생들의 연간 독서량이 10여권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발표가 있다. 그 외에 피조사자의 27.3%인 155명은 거의 독서를 하지 않음이 들어났다(표 3 참조). 이렇듯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독서생활이 피폐하고 저조 되어 있음은 여러 가지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의 독서부진 원인(독서장애 요인)을(표 3)에서 알아보면, 피조사자의 27.3%인 155명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독서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는 원인은 ‘독서가 습관화 되어있지 않다’(23.8%: 135명). 세 번째 요인은 19.4%인 110명이 ‘TV시청, Computer game, Internet 등에 시간을 빼앗겨서’이다. 원래의 예상은 이러한 영상매체의 영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 봤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면 세 번째 원인도 결국 독서할 시간이 없음과 결과적으로 상통하는 내용이다. 그 외에도 독서저해 요인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개인차가 다양하게 표출 되었는데 이러한 대학생들의 독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독서지도 방법의 일환으로서 「개인독서상담」의 필요성이 대두 된다. 즉 독서지도(reading guidance)를 통한 현실적 독서문제 해결책이나 사안별 독서치료(reading therapy)가 요구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독서율과 독서실적은 너무도 열악하고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독서부진 현상을 타개하고 저조한 독서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적, 사회적, 교육적인 처방과 효과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그 대안으로서

첫째, 대학생들에게 독서철학의 인식 제고와 독서철학의 깊고 넓은 이해를 통한 현실적 실천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대학생들의 의식이나 내면에 독서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계획적, 의도적으로 대학교육 정책면에서나 교육방법, 교육과정에 「독서학점부과제도」나 「독서인증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이를 실행함이 요구된다. 그리고 참고로 ‘독서학점부과제도 실시 방안’에 대하여 연구자 본인이 주관적 견해를 정리, 제시하여 보았다.

셋째, 대학생들의 독서저해요인에 대한 학생 개인의 사안별 독서지도 및 독서상담, 독서치료 시행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독서부진 해소방안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독서실적을 한층 끌어올리고, 다양하고 폭넓은 독서를 통한 지적, 정의적 성장 발달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서적을 통한 교양교육과 인성교육, 전인적 인격도야 교육을 지속적으로 규모 있게 실행하여야만 이 국가사회가 필요로 하는 원만하고 능력 있는 교양인, 지성인, 문화인의 자질을 구비하게 되어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육성 배출하는 대학교육의 목적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 할 수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